

중장년 구직자 70%, 등 떠밀려 '퇴직'



▲ 채용 공고를 살피고 있는 구직자들. 사진=n21.hani.co.kr

4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 10명 중 7명은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요인으로 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는 이날 지난 9월15일부터 10월8일까지 4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 306명을 대상으로 '중장년 구직 활동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59.5%는 권고사직, 명예

퇴직, 정리해고, 계약 종료 등으로, 12.4%는 사업 부진, 휴·폐업 등으로 인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71.9%가 비자발적 요인으로 퇴직한 것이다. 정년퇴직한 응답자는 19.0%로 집계됐다.

이들이 재취업 시 희망하는 임금은 월 272만 원으로, 직장에서 퇴직 시 받았던 평균 임금(344만 원)보다 20.9% 낮았다. 중장년 구직자 10명 중 6명은 자신의 주된 경력분야가 아니더라도 재취업을 희망했다.

기존의 주된 경력과 재취업 시 희망 직종을 다르게 선택한 이유로는 '연령제한 등으로 기존 직종 취업 가능성이 희박' (58.1%), '장기적 비전 고려 시 과거 경력 분야 보다 희망직 종이 유리' (11.1%) '희망 직종이 중장년 취업이 쉬움' (10.1%) 순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이 구직 활동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중장년 채용 수요 부족' (32.9%)이 가장 많았다. 이어 '나이를 중시하는 사회풍토' (30.2%) '새로운 기술, 직무 역량 부족' (13.5%), '눈높이 조정 어려움' (10.6%) 등이 꼽혔다.

중장년 구직자의 67.0%는 70세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계속 하기를 희망했다.

외환보유액 4개월 연속 사상 최대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지난달 52억 달러 이상 늘면서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미국 달러화가 전월보다 약세를 보이면서 기타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미 달러화 환산액이 늘었고 금융기관의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3일 '머니S'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이날 '2021년 10월 말 외환보유액'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692억 1,000만 달러로 전월 말(4,639억 7,000만 달러) 대비 52억 4,000만 달러 증가했다. 앞서 외환보유액은 지난 4월, 5월 2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찍은 뒤 6월 미 달러 강세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후 지난 7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지난달 증가폭도 전월(4,000만 달러) 대비 크게 늘었는데 이는 기타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미달러화 환산

액이 늘고 외화자산 운용수익 등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미 달러화 지수는 93.35로 전월(94.34)보다 1.0%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7일 13억 달러 규모의 외국환 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역대 최저 가산금리로 발행한 점도 외환보유액을 늘리는데 영향을 미쳤다. 외평채는 외화 조달을 위해 발행하며 마련한 자금은 외환보유액으로 운영된다.

지난 9월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를 기록했다. 전월(8위)에서 6개월 만에 한단계 하락했다. 1위인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3조 2,006억 달러로 315억 달러 줄었다. 이어 일본(1조 4,093억 달러), 스위스(1조 774억 달러), 인도(6,354억 달러), 러시아(6,141억 달러), 대만(5,449억 달러), 홍콩(4,950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4,654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물가 9년9개월 만에 최고



▲ 서울 한 대형마트의 계란 진열대. 사진=shutterstock

지난달 한국의 소비자물가가 9년9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2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통계청은 이날 10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0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 보다 3.2% 상승했다고 밝혔다. 2012년 1월(3.3%)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4월 2.3%로 2% 선을 넘어선 후 지난달까지 7개월째 2% 이상 고공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물가를 끌어올리는 데는 비싼 기름값이 큰 영향을 끼쳤다. 석유류 가격이 27.3% 뛰어 2008년 8월(27.8%) 이후 13년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공업제품 가격이 지난해 대비 4.3%로 크게 올랐다.

휴대전화비가 포함된 공공서비스 요금도 5.4% 올랐다. 소비심리가 개선되면서 외식비 등이 포함된 개인서비스 요금도 2.7% 올랐다. 집세가 1.8% 오른 가운데 전세 상승률은 2.5%, 월세 상승률은 0.9%를 보였다. 체감률을 설명하는 생활물가지수는 4.6% 올랐다. 2011년 8월(5.2%)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농축수산물은 1년 전보다 0.2% 올라 안정세를 보였다. 다만 고기, 계란 등 축산물 가격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계란 가격은 1년 전보다 33.4% 올라 열 달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일단 유류세 인하를 빠르게 시장 가격에 반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영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위드 코로나로 보복 소비도 늘 것으로 예상돼 물가 상승세는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거절된 케이스 재심 및 항소 신청 /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 중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DACA 연장, 드림법안
및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 중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